

<div>2026년 7월, 출범 확정</div> <div>제물포구·영종구</div> <div>서구·검단구</div>		<div>보도자료</div>		<div>이제는 인천입니다</div> <div>2025 APEC INCHEON</div>
		<div>배포일자</div>	<div>2024년 5월 28일(화)</div> <div>총 2매</div>	
<div>담당 부서</div>	<div>문화정책과</div>	<div>담당자</div>	<div>• 문화정책팀장 최재필 ☎ 440-4011</div> <div>• 담당자 이은영 ☎ 440-4017</div>	
<div>사진(이미지)</div>		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</div>	<div>참고자료</div>	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</div>
<div>보도시점</div>		<div>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div>		

## 백령도 주민들과 함께, 5월 29일 「수문통 음악회」

- 수요일은 문화로 소통하는 날, 매일 음악으로 소통의 장 만들어 -

인천광역시와 5월 문화가 있는 날, 백령도 주민들을 위한 「수문통(水文通) 음악회」를 오는 29일(수) 오후 8시 백령농협 앞 광장에서 개최한다.

인천시는 일상 공간 곳곳을 문화와 예술로 가득 채우는 ‘우리는 인천! 요기조기 음악회’를 본격 시작해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 300회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

그 일환으로 시민들의 삶의 생업 현장으로 찾아가는 「문화가 있는 날, 수문통(水文通) 음악회」는 총 20회 개최하며, 5월에는 도서지역 특성상 쉽게 음악회를 찾지 못하는 백령도 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개최한다.

실력있는 성악가와 바이올리니스트가 성악곡, 대중가요, 클래식 연주 등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.

시는 이번 「수문통(水文通) 음악회」를 통해 문화소외계층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음악이 주는 응원과 격려로 특별한 시간을 만들길 기대하고 있다.

박정남 시 문화정책과장은 “「수문통(水文通) 음악회」를 통해 시민들이 수요일은 문화로 소통하며 문화에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